

‘K-Culture와 K-Food를 세계로’

한문화국제협회, 비전 선포식 개최

전북만의 한스타일 세계화 전략 제시

전북이 보유한 전통문화와 음식, 관광 자원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관광 산업 비전이 제시됐다.

사단법인 한문화국제협회(이사장 김관수)는 지난 13일 오후 전주 라한호텔 온고를 홀에서 K-Culture Vision 선포식을 개최하고, 전북의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래 성장 전략과 글로벌 문화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전북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과 경쟁력을 세계화하고, 문화·음식·관광을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비전 제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K-팝, K-드라마, K-푸드 등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이 가진 전통문화와 음식 자원을 활용해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선포식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장 조지훈 전주시장,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김두봉 전북노인회 회장, 홍성연 전주시 노인회장,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사업국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이자 전북에한본부 본부장 임환 전라일보 사장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문화·관광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이 가진 문화적 역량과 음식 자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K-Culture와 K-Food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사)한문화국제협회는 이날 ‘韓 Style K-Food 세계에 꽃피우자’라는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이는 전북의 대표적인 문화 자산인 전통 음식과 한식 문화를 단순한 먹거리 차원을 넘어 관광·콘텐츠·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북은 예로부터 풍부한 농생명 자원과 전통 음식문화를 보유한 지역으로 평가받아 왔다. 비빔밥, 발효식품, 전통주, 장류 등 다양한 음식문화뿐만 아니라 판소리, 한지, 전통예술, 역사문화유산 등 세계화 가능성이 높은



지난 13일 오후 전주 라한호텔 온고를 홀에서 K-Culture Vision 선포식 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사)한문화국제협회는 이러한 자원을 현대적인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전북형 K-Culture 모델’을 구축하고,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새로운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와 생활방식, 정체성을 전달하는 문화 콘텐츠라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김관수 이사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음식 산업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전북의 미래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푸드 산업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1경 3천조 원이 넘는 세계적인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음식과 문화, 관광이 결합하면 전북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푸드 산업은 이제 단순한 생산과 소비의 영역을 넘어 관광,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광, 음식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전략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또 “전북은 다른 지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전통성과 문화적 깊이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 지역이 가진 음식문화와 문화자원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데 민간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K-Culture의 발전 방향과 전북 문화관광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전문가 강연도 이어졌다.

김영기 한문화국제협회 기획실장과 오영택 전주대학교

교수는 ‘K-컬처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한국 문화산업의 세계적 흐름과 전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강연에서는 전북의 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지역 특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 세계 시장을 겨냥한 문화 브랜드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이를 산업화하고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전북이 단순한 관광 소비지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는 ‘K-Culture 거점’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한문화국제협회는 앞으로 전북민의 차별화된 문화·음식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K-Food를 중심으로 한 음식문화 체험,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국내의 홍보사업 등을 통해 전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문화와 관광, 농생명 산업을 연결해 지역 생산자와 기업, 관광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력한 전북 K-컬처 세계화’를 주제로 다양한 퍼포먼스도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전북 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만호 기자



전북대병원, 전북권 모자의로 협력체계 강화

전북대학교병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전북권 의료기관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 13일 병원에서 ‘모자의로 진료협력 강화’를 위한 긴급 병원장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자의로 분야의 대응 방안과 지역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북권 모자의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병원장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모자의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간 신속한 전원체계 구축과 병상 공유, 특수이송체계 운영 등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지역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앙모자의료센터와 긴밀히 연계해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전북권 모자의로 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진들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적기에 치료받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개별 의료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하림, 초목 맞아 지역사회에 토종닭 기부

종합식품기업 하림(정호석 대표이사)이 다가오는 초복을 앞두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토종닭 1만5,000여 마리를 기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하림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복을 맞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대표 보양식인 토종닭 현물 기부를 단행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기부된 물품은 백숙용 토종닭 총 1만5,000여 마리 규모로 구성됐다. 이렇게 준비된 나눔 물품은 전북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노인회 등 두 곳의 후원 기관으로 나누어 지역사회 곳곳의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남원 금동, 취약계층 마음 돌봄 나서



남원시 금동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개최된 ‘제6회 남원시자원봉사자바라타’에서 남원고 학생들의 정성으로 완성된 공기정화식물을 관내 경로당 및 마을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있다.

이번 전달은 청소년들의 순수한 봉사 정신과 금동의 세심한 행정망을 연계해 외로운 이웃의 마음을 달래는 ‘정서적 치료제’로 제탄생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특히 금동은 이 화분들을 1일 1가구 소분행정을 통해 발굴된 마음 돌봄이 필요한 30가구를 직접 찾아가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광주경찰청 경찰특공대 실전형 전문훈련

남원시가 광주경찰청 경찰특공대 실전형 전문훈련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며 경찰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더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훈련은 광주경찰청의 공식 협조 요청에 따라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 인근 시설에서 진행됐으며, 경찰특공대원 13명이 참여해 통로개척과 근접전투 기술 습득 등 실전형 전문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 앞서 광주경찰청 경찰특공대 전술팀장과 부팀장은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시설이 실전형 전문훈련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최적의 훈련장소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향후 연합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확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방산기업 데크카본, 산단 노동자 ‘천원의 아침밥’ 봉사

팔복예술공장서… 전주시와 간담회도 진행

전주지역 대표 방위산업 기업인 (주)데크카본이 새벽을 여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아침을 전달하며 응원을 보냈다.

전주시는 14일 팔복예술공장 카페에서 (주)데크카본(대표 신현규) 임직원들이 ‘천원의 아침밥’ 현장을 찾아 산단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 새벽 현장을 지키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산단 노동자들에게 직접 식사를 건네며 지역사회를 위한 상생 행보에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이날 봉사 이후에는 전주시 관계자와 보조사업자인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관계자, 신현규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데크카본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취지와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사업 홍보를 위한



간담회도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아침 식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업과 지자체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 응기종기 문화센터 하반기 프로그램 개강

부안군 응기종기 문화센터에서는 군민의 평생학습과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술·자격, 어학 취미, 교육, 건강 분야 등 21과목 28개 반으로 편성해 이달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1과목을 수강료 면제 제도로 올해도 운영해 약 160여명의 어르신들이 수강료 부담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소방서·의용소방대, 폭염 안전지킴이 물품 전달

부안소방서(서장 최길웅)는 지난 14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부안의용소방대 연합회 주관으로 폭염 대응 물품 생수 200박스 전달식을 부안군의회 이현기 의장 등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서는 폭염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격려하고, 향후 폭염 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협조 사항을 공유하며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여성자원활동센터, 사랑의 삼계탕 나눔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는 14일 전주여성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경진) 나눔찬방에서 회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삼계탕 나눔 행사를 펼쳤다.

회원들은 삼계탕 100인분의 재료를 정성껏 손질하고 조리하여 밀반찬과 함께 취약 계층에게 전달됐다.

한편 20여 명의 여성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전주여성자원활동센터는 전주지역 20여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은 장학문화재단, 전주·남원서 JB인문학 강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준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13일 전주신흥고등학교와 남원고등학교에서 2026 JB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에는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떠뿌이 프랜차이즈 ‘뚜끼’의 김관훈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학생들과 자신의 성장 경험과 도전 정신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 대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어본 적이 있나요?’를 주제로 방화하던 학창 시절부터 연 매출 수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을 일군 과정까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소개하며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오상근 기자



농협 부안·무주군지부 등, 선진 콩 유통시설 견학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지부장 조상완)와 무주군지부(지부장 소수은), 부안중앙농협(조합장 신정식), 구전동농협(조합장 김성관)은 지난 13일 부안중앙농협 콩 종합유통센터에 임직원들이 선진 콩 유통시설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농심친심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첨단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고 전국 최고 수준의 콩 생산·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견학은 콩 종합유통센터는 농협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오는 9월 18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무주=송윤희 기자